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다음 주일은 부모 주일입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제 2차 성경통독 150일 운동이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지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 잠시 멈추었다면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범위:시편 125편에서 잠언 29장까지).
3. 금요저녁기도회가 오는 11일(금) 본당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의 맥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4. 교회 창립 19 주년(7월 15일) 준비에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성도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찬송, 기도, 안건토의).
6. 엔터테인먼트 북을 판매합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앱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가격은 \$70입니다. 판매금액에서 \$14이 교회 선교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박덕철장로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김창조, 김명옥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주소: 4b/371 Khyber Pass Rd, Newmarket
8. 경덕현(김인희) 집사 장녀 혜원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일시: 2018년 5월 12일 오후 2시 15분 장소: 호주 퀸즈랜드
10.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동체

2018년 5월 6일 자녀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City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New North Rd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Burleigh St	청년예배	주일 PM3:15
Nugent St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마가복음10:15; 요한복음4:24
◎ 찬 송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대 표 기 도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16:16-20
찬양대 찬양	주 나의 노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교제와 권면 이태한 목사
찬 송	주님 찾아 오셨네 534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 교회 사역

5월 6일(주일): 자녀주일
5월 11일(금요일): 저녁기도회
5월 13일(주일): 부모주일
5월 30일(수요일): 공동체 주관예배
(통가공동체)

5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임태원 집사
다음 주일: 정관영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5월 16일 수요일: 이애란 권사
5월 16일 애찬: 장연식 집사
5월 20일 주일: 김현주 권사
5월 20일 청년부: 이지수 자매

5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손조훈/이애란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영혼 구원의 교두보의 교회가 되도록.
2.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네팔에서 사역 중인 전기봉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미국을 돌아 한국을 경유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인도에 들어왔으나 살인적인 더위에 안절부절합니다. 45도 폭염에 땀을 흘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5월 초에 들어서는 50도 가까이 수은주가 올라간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합니다. 낭패라는 생각이 들어 네팔로 피신을 가야할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러준 공사도 잘못 해놓고 심지어 자재를 도둑질하고도 시치미를 뚝 잡아떼는 모습에 정말 속된 말로 꾸경이 열릴 지경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을 삭히고 공사를 계속해야하는 심정,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한번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속고 또 속고 사는 인생 이것이 사명자로서 구도자의 길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부족한 종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1:24)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 평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라만다 성전 터입니다. 45도 폭염이라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겨우 20여명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도 없고 땀병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간신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 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8:41-42, 49-56
설 교	달리다굽/ 이태한목사
찬 송	446장
주 기 도	다같이

기도 : 임윤호 형제